

---

# GKEDC 전시관 리노베이션 관련 유관기관 사례조사

---

2025. 4. 19. - 4. 24.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한국개발연구원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이하 GKEDC)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제발전과 관련한 전시, 교육,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
  - GKEDC 상설전시 리노베이션은 2024년 5월 시작된 본 위탁사업의 과업 중 하나로, 전시 시설 및 콘텐츠의 교체를 통해 수요자지향형 전시관으로의 변화를 추구
  - 본 출장은 일본 고베 및 '2025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하여 리노베이션 기획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고, 전시 콘텐츠 구성 및 공간 연출, 최신 연출 기법 및 매체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

## 2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5년 4월 19일(토) ~ 24일(목) [한국 출·입국일 기준]
- 출장지: 일본 고베 및 오사카
- 주요 활동상황
  - (고베) 사람과방재미래센터, 타케나카목수박물관, 고베시립박물관 방문을 통해 주제 전달 방식, 역사 스토리텔링 기법, 공간 구성 및 리모델링 사례 등을 조사
  - (오사카) 오사카 엑스포, 오사카기업가박물관,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 방문을 통해 전시 콘셉트, 공간 구성, 전시매체 등을 조사
    -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의 전시 시설 조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기획전시 등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
- 출장자(총 3인)

#	성명	소속	직함	역할
1	강동수	KDI GKEDC운영단	단장	사업책임자
2	정원식	KDI GKEDC운영단 리노베이션TF실	실장	사업관리자
3	이지혜	KDI GKEDC운영단 리노베이션TF실	연구원	사업실무자

### 3 출장일정

□ 주요 일정

날짜	시간	장소	일정	비고
4/19 (토)	08:25 ~ 10:00	인천	[이동] 대한민국 인천 → 일본 고베	대한항공 KE0731
	14:00 ~ 17:30		사람과방재미래센터 조사	
4/20 (일)	10:00 ~ 12:00	고베	고베시립박물관 조사	
	14:00 ~ 16:00		타케나카목수박물관	
	17:00 ~ 18:30	이동	[이동] 일본 고베 → 오사카	
4/21 (월)	10:00 ~ 12:00		한국관 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13:00 ~ 15:00		중국관 조사	
	15:00 ~ 17:00		미국관 조사	
	17:00 ~ 18:00		UAE관 조사	
4/22 (화)	09:00 ~ 11:00	오사카	일본관 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11:00 ~ 12:30		호주관 및 사우디아라비아관 조사	
	13:30 ~ 15:30		EU관 및 Commons관 조사	
	15:30 ~ 17:00		벨기에관 및 싱가포르관 조사	
	17:00 ~ 18:00		스페인관 조사	
4/23 (수)	09:00 ~ 10:00		프랑스관 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10:00 ~ 11:00		영국관 조사	
	11:00 ~ 12:00		전력관 조사	
	15:00 ~ 18:00		오사카기업가박물관 조사	
4/24 (목)	10:00 ~ 12:00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업무협의	강동수 단장 수행
	10:00 ~ 12:00		파나소닉 뮤지엄 조사	정원식, 이지혜 수행
	13:00 ~ 17:00		중식 및 이동	
	19:35 ~ 21:25	김포	[이동] 일본 오사카 → 대한민국 김포	대한항공 KE2120

## 4 주요 내용

### 1. [사례조사] 사람과방재미래센터

□ 일 시: 2025년 4월 19일(토), 14:00~17:30

□ 전시 개요

-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전시화한 곳으로, 재난의 기억 보존, 방재의식 교육, 미래지향적 방재기술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된 방재 전문 전시관
- 전시는 서막영상관(1.17 시어터)에서 시작되며, 특수 영상과 음향을 활용해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긴박함을 몰입감 있게 전달
- 상설 전시관은 서관과 동관으로 나뉘며, 서관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피해와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동관은 미래 방재기술과 재난 대응 콘텐츠와 이를 통한 방재의식 교육 등을 운영

□ 시사점

- 시각자료, 데이터, 체험요소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입체적인 전시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자의 몰입과 이해를 유도
- 피해자 증언, 실물 재현, 행동 매뉴얼 체험 등을 통해 재난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비하고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흐름으로 전시를 구성
- 특히 ‘실제 사례 기반 체험’에서 ‘기술 및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시 흐름은 경제적 위기(예: IMF, 외환위기 등) 상황을 콘텐츠화 하는 데 있어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시동을 과거(서관)와 미래(동관)로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지진 피해와 최신 방재기술 및 대응 교육을 콘텐츠로 배치하여 재난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미래 대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

□ 관련 사진



전시관 내부 전경



피해자의 증언이 전시된 '기억의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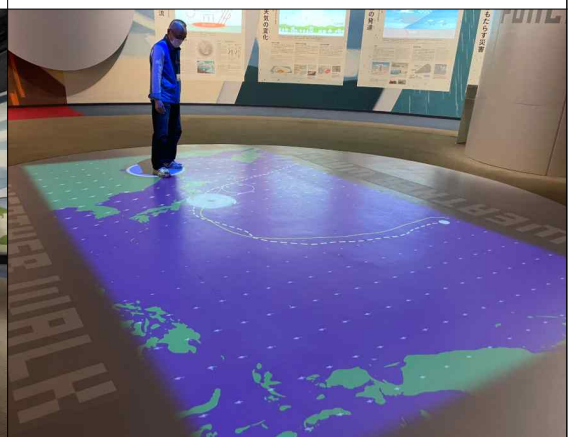
지진 피해 복구 현장 기록 전시



재난 이전의 일상을 표현한 디오라마 전시



지구과학을 콘텐츠로 한 인터랙티브 전시



해류 시뮬레이션 체험 콘텐츠

## 2. [사례조사] 고베시립박물관

□ 일 시: 2025년 4월 20일(일), 10:00~12:00

□ 전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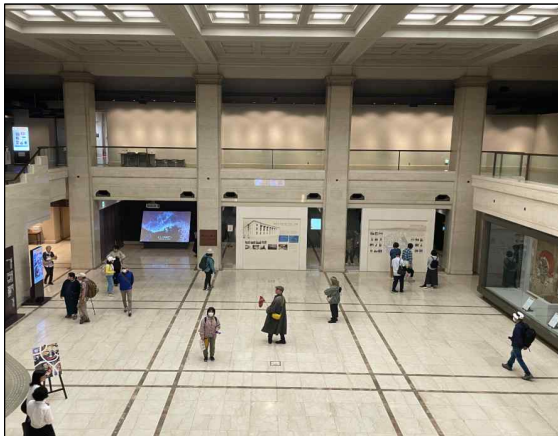
- 고베시립박물관은 과거 은행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전시관으로 개조한 박물관으로, 항구 도시 고베의 개항의 역사와 그에 따른 고베 및 도시민의 삶의 변화 양상 등을 전시
- 고베가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항구 도시라는 배경을 조명하며 무역, 외교, 일상 문화 속 교류의 흔적을 시각자료, 디오라마, 영상 등을 통해 전달

전시실 명칭	주요 특징
1층 고베 역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베의 바다와 항구를 통해 이뤄진 문화의 교류 과정을 4개의 시대로 구분하여 소개</li> <li>- 고베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한 국제교류의 실체 조명</li> </ul>
2층 컬렉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보인 ‘사쿠라가오카 동탁·동과’와 중요문화재 ‘프란치스코 자비에르상’ 등을 비롯한 다양한 미술품 및 공예품뿐 아니라 고지도 등 역사 분야 콘텐츠를 주제별로 구성</li> </ul>

□ 시사점

- 항구 도시 고베의 도시 정체성과 국제교류의 흐름을 주제로 지역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조명하는 서사 구조로 구성
- 지역성과 국제성을 하나의 이야기 구조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전시 방식은 경제발전의 국내적 흐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와의 연계성을 전시화 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디오라마, 영상 등의 시각적 전시기법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일상을 수채화 및 애니메이션 등의 그림 형태로 재현함으로써 관람객이 시대적 맥락 속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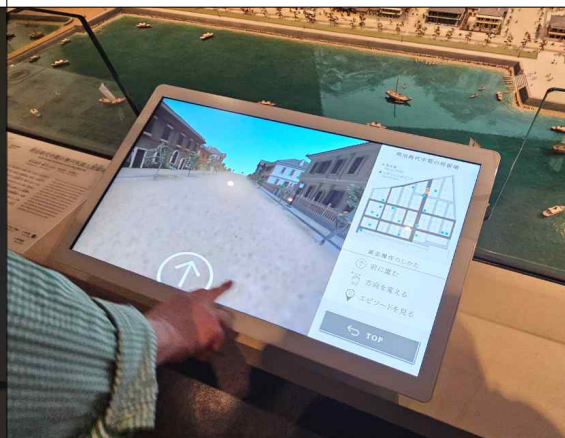
구 고베은행을 리노베이션한 내부 전경



고베의 역사를 연출한 서막 영상



수채화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한 영상 전시



옛 고베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



영상 패널과 디오라마를 배치한 사례



동시대 일본과 세계의 역사 비교 시각화

### 3. [사례조사] 타케나카목수박물관

□ 일 시: 2025년 4월 20일(일), 14:00~16:00

□ 전시 개요

- 일본 유일의 목수 도구 전문 박물관으로, 사라져가는 전통 목공 연장을 보존하고 장인의 기술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1984년 고베에 설립
- 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목수 도구 약 1천 점을 실물과 복원자료로 전시하고 있으며, 일본 목조건축의 역사와 함께 도구의 발전 과정을 소개
- 전시는 나무의 향, 감촉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연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보는 전시가 아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
- 디지털 영상과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전통 건축의 시공 방식과 도구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목공 수업, 장인 시연, 체험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 시사점

- 도구, 사람, 재료, 건축이라는 목공의 네 가지 요소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구성한 점은 리노베이션의 기획과 전시관 Zoning 설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
- 도구를 단순히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전시는 관람객과 전시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신 전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 목공 도구를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은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리노베이션의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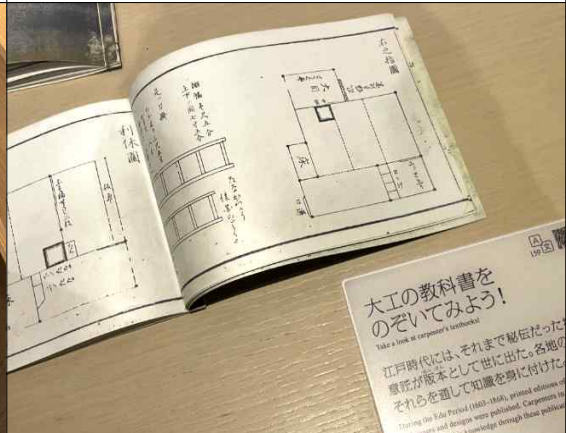
전시관 내부 전경



다양한 목공 도구의 전시



목공 기법에 따른 톱밥 차이 체험



전시실에서 열람 가능한 옛 목공 교과서



테이블 선반을 이용한 전시물 배치



일본·중국·유럽의 대패 체험실

#### 4.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한국관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 10:00~12:00

전시 개요

- ‘진심으로 마음을 잇는 미래’ 를 주제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기술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3개의 공간에 예술적으로 구현

구분	주제	주요 특징
1관	“소리와 빛을 모아 모두가 하나 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구에서 관람객이 다양한 언어로 남긴 음성을 시가 음악으로 재구성</li> <li>- 음악과 빛을 감각적인 사운드와 비주얼 아트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구현</li> </ul>
2관	“황폐화된 도시에서 생명의 회복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로 황폐해진 도시의 모습과 폐자재를 전시하여 환경 문제에 공감을 유도</li> <li>- 한국의 친환경 기술인 수소연료전지를 관람객의 숨결과 결합하여 체험의 기회를 제공</li> </ul>
3관	“같은 시간 속의 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의 고등학생이 과거에 완성되지 않은 할아버지의 음악을 완성하는 이야기</li> <li>- 음악을 매개로 세대 간 연결과 공감을 표현</li> </ul>

- 음성, 기술, 예술,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몰입형·체험형 전시를 통해 감각적인 경험과 함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복합적으로 전달

시사점

- 환경과 기술을 접목한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체험 전시는 경제발전과 기후변화를 연결하려는 전시동 2층 리노베이션의 주요한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대 간 연결을 주제로 한 서사적 영상 연출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사적·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서막영상관 제작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사진



외벽을 LED로 장식한 한국관 전경



관람객 목소리를 녹음하는 체험 부스



빛과 소리로 연결된 1관 연출



친환경 미래를 그린 인터랙티브 아트



숨결로 완성되는 탄소중립 체험



세대와 감정을 잇는 K-컬처 영상

## 5.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중국관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 13:00~15:00

전시 개요

- 중국의 전통 문화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이를 현대 사회와 기술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전시
- 외관은 시간의 흐름과 문화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중국 전통 서예의 두루마리(書卷) 형태를 형상화
- 전시는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중국 문화의 생태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구성
- 중국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가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성·지역주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문화와 산업, 예술 등을 소개하는 교류형 행사를 병행
-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국관은 생태 문명, 지역 다양성, 전통과 현대의 연결을 중심으로 환경과 문화, 기술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

시사점

- AI 문답, VR 체험, 터치 패널 등 다양한 최신 전시 기술을 통해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중국관의 전시 기법은 수요자 지향형 전시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GKEDC 리노베이션의 목적에 부합
- '천인합일', '녹수청산', '생생불식' 등 다층적 스토리텔링은 복합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는 GKEDC 리노베이션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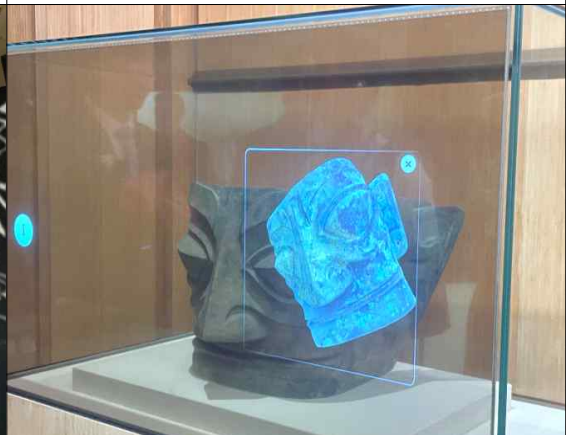
원형의 미디어 디스플레이



곡선형의 소규모 영상 공간



12간지를 설명하는 영상 콘텐츠



유물 위 투명 터치 디스플레이 시스템



관람객과 대화하는 AI 캐릭터



화이트 톤의 에너지 도시 디오라마

## 6.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미국관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 15:00~17:00

전시 개요

- 미국관은 ‘함께 상상하는 미래(Imagination with You)’ 라는 주제를 창의성, 기술, 다양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문화, 산업, 과학적 리더십을 소개
- 전시는 ‘Spark’ 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진행되며, 관람객은 Spark의 안내에 따라 4개의 몰입형 전시 공간을 순차 경험

주제	주요 특징
연결 (Connecting)	- 미국에서의 학업, 연구, 직업 경험 등을 소개하며, 문화·학술 교류가 삶과 아이디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실제 인물의 사례를 통해 전달
혁신 (Innovation)	- 농업기술, 의료, 소재, 응용과학 등 미국의 첨단기술 사례를 디지털 미디어와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 - AI 캐릭터와 청년 대사(Youth Ambassador)가 관람객과 대화하며 전시를 안내
여행 (Travel)	-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 도시, 지역문화, 음식 등 다양한 풍경을 시각 매체를 통해 제공 - 각 주의 고유성 및 탐험의 즐거움 강조
우주 (Space)	- 아폴로부터 아르테미스까지 미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다루며, 달 표면 모형과 희귀한 달의 암석 실물 등을 소개

시사점

-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설계는 관람객의 관람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전시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서사적 역할도 수행
- 우주·혁신·문화라는 다양한 주제를 통일감 있는 전시 디자인을 활용하여 이질감 없도록 연출하였으며,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안내는 다양한 영역을 통일된 흐름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예시가 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사진



LED 영상으로 꾸며진 미국관 외관



스토리 안내자 '스파크' 캐릭터



관람 대기를 위한 코리도어 공간



공연처럼 연출된 몰입형 전시 콘텐츠



공간의 확장 효과를 위한 거울 설치물



거울을 활용한 전시 공간의 확장 효과

## 7.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UAE관

□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 17:00~18:00

□ 전시 개요

- 전시관 외관은 아랍의 전통 재료와 일본의 목조 건축 기법을 결합하여 설계하였으며, 외부와 내부가 동일한 디자인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전시 공간 전체에 통일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

주제	주요 특징
전통과 유산	- UAE의 자연, 전통 의복, 공예품, 음식문화 등 소개 - 고대 도구와 유물을 통해 전통 가치와 삶의 지혜 소개
기술과 혁신	- 우주 탐사, 의료 혁신, 지속가능 에너지 등 UAE의 첨단 기술 소개
문화 교류와 연결	- 일본과 UAE의 공동 청년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간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연출

□ 시사점

- 청년 앰배서더가 전시를 설명해주는 안내 방식은 전시 메시지를 친근하게 전달하고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를 제공
- 시각·청각뿐 아니라 후각, 촉각까지 활용한 감각적 연출은 적극적인 관람을 유도하고, 관람 후에도 전시 콘텐츠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

□ 관련 사진



## 8.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일본관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09:00~11:00

전시 개요

- 일본관은 ‘생명과 생명 사이’ 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자연, 사회, 기술이 어떻게 순환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전시로 구현
- 관람객은 3개의 출입구 중 어디에서 들어오고 나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전시 서사를 경험

주제	주요 특징
Factory	- 엑스포 현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을 소개
Plant	- Factory에서 분해된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일본관의 순환 구조를 소개
Farm	- 순환 구조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어떻게 살아 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소개

- 전시는 일본 고유의 자연관과 미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를 질문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표현

시사점

- 건축과 전시 콘텐츠가 분리된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도록 설계하여 전시의 주제와 메시지를 강조
- 각 Zone의 입구에 유사한 전시물(모래시계)을 배치한 방식은 정해진 관람 순서 없이도 의미 있는 서사를 제공하는 유연한 전시 흐름 설계로, 관람자 주도형 동선 구성의 좋은 사례로 판단
- 철학적 주제를 캐릭터와 감각적 연출로 풀어낸 점은 대중성과 메시지 전달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에게 공감으로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연출 방식으로 판단

□ 관련 사진



## 9.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호주관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1:00~12:30

전시 개요

- 호주관은 ‘Chasing the Sun’ 이라는 주제 하에 호주의 자연 환경과 호주의 문화적 가치인 다양성과 창의성을 감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
- 전시는 태양을 따라 호주 전역을 횡단하는 여정으로 연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관람객이 후각, 청각, 시각을 모두 활용하여 호주의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
- 유칼립투스 숲을 재현한 공간은 숲 느낌의 조향과 함께 거울을 활용하여 전시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는 효과를 유발하도록 설계
- 영상관은 다수의 대형 LED 패널을 좌우 벽과 천정 등에서 설치하여 호주의 땅과 바다, 생물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람객은 영상을 통해 숲과 해변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연출

시사점

- 대형 LED 패널을 활용한 몰입형 영상 연출은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 또는 상징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관람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거울을 이용한 확장 연출은 GKEDC의 협소한 공간과 기둥으로 인한 제한성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연출 기법으로 사료
- 후각, 청각,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을 결합한 연출은 기술적 설명이나 정보 중심의 콘텐츠도 감각적 체험과 함께 구성하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증빙

□ 관련 사진



호주 지도를 형성화 한 미디어월



태양빛을 형상화한 통로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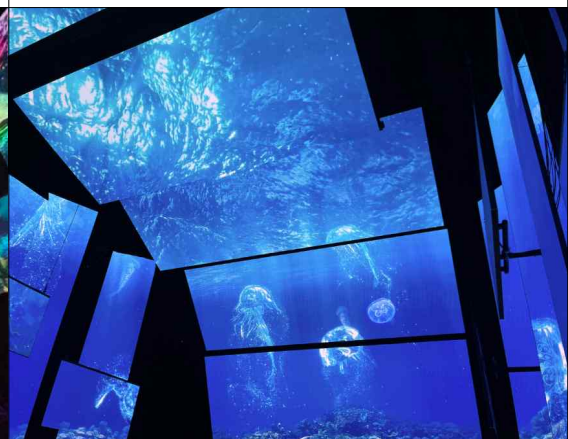
거울로 확장된 유칼립투스 숲



나무옹이에 삽입된 미디어 연출



대형 LED 패널을 설치한 영상관



LED 패널을 활용한 몰입감 높은 영상

## 10.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사우디아라비아관

□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1:00~12:30

□ 전시 개요

- 사우디아라비아관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사우디의 전통과 정체성, 도시 발전 비전을 탐색하는 여정을 중심으로 구성
- 전시는 사우디의 전통 마을과 도시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관람 동선을 따라 진행되며, 이는 관람객들에게 마치 사우디를 여행하는 경험을 제공
- 전시 공간은 곡선형 중정과 골목길을 형상화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좁은 골목길을 걷다 전시물과 전시 매체를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관람객들에게 제공
- 사우디의 역사적 건축 양식과 현대의 도시개발계획(예: 네옴시티)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시 콘텐츠는 전통과 현재의 공존이라는 전시 주제를 대변

□ 시사점

- 동선을 골목길처럼 설계한 구성은 관람 행위를 하나의 콘텐츠로 승화한 것으로, 좁은 공간이 주는 이동의 불편보다는 관람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발생
- 단순한 시청각 자료 외에도 실물 모형이나 촉각적 요소를 결합한 연출 방식은 관람객의 관람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리노베이션의 연출 기획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로로 긴 좁은 골목길을 영상관으로 조성한 공간은 영상관은 가로가 길고 넓어야 한다는 전시 기획의 상식을 깨는 획기적인 공간 조성 방식이라고 평가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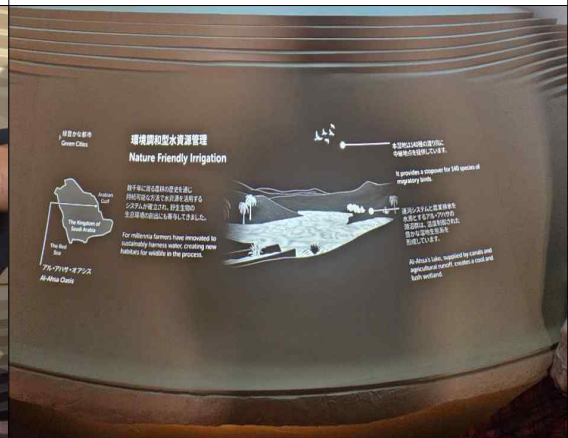
전통 골목길을 형상화한 전시 동선



문화행사용 전시 공간



석재를 만져보는 촉각 체험물



테이블 투사형 인포그래픽 영상



3D 입체 식물 부조 전시 연출



몰입감을 높인 긴 통로형 스크린

## 11.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EU관

□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3:30~14:30

□ 전시 개요

- ‘미래를 키워가다’ 를 주제로 EU와 일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사회를 소개
- 전시는 EU의 정책, 철학, 기술, 예술, 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ew European Bauhaus’ 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지속가능성, 아름다움, 포용성을 전시로 표현

□ 시사점

- 전시 콘텐츠를 일방적인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체험(종이학 접기, AI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정보 전달 효과를 증진
- 포용성이라는 메시지를 공간 전반에 담아낸 전시 구성은 정치·경제 이슈뿐 아니라 인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발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GKEDC의 리노베이션에 시사점을 제공
- AI와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 연출은 단순 시청각 콘텐츠를 넘어 몰입감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을 전시하고자 하는 GKEDC 리노베이션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 관련 사진



AI 모델과 통화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종이접기와 학습을 연계한 체험 전시물

## 12.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Commons관

□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4:30~15:30

□ 전시 개요

- Commons관은 독립적인 파빌리온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전시 공간
- 전통 의상, 예술 작품, 대표 기술 등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역사,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일부 부스에서는 제작 시연과 음식 시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 시사점

- 소규모 부스를 활용한 전시는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Loss 공간 또는 Dead space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다양한 국가들의 서로 다른 전시를 보여주는 Commons관은 좁은 공간에 여러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 전달력 있게 전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 관련 사진



국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크라이나

강렬한 색감의 자메이카 부스

### 13.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벨기에관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5:30~16:20

전시 개요

- 벨기에관은 전시의 핵심 주제인 ‘물의 세 가지 상태: 고체, 기체, 액체’를 건축물과 전시 공간 구조에 형성화한 감각적인 설계로 조성

주제	주요 특징
1층(고체)	- 과학기술 기반의 전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명과학 및 백신산업 관련 벨기에의 강점을 소개
2층(기체)	- 디지털 기술과 의료 로봇틱스, AI 기반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인간의 생애 주기와 최신 혁신 기술을 연계
3층(액체)	- 오픈바 공간과 테라스를 통해 물의 순환과 조화의 개방감을 제공

시사점

- 건강 관련 기술을 인간의 생애주기에 대입한 전시를 통해 미래 사회와 혁신 기술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
- 물의 상태 변화를 전시 동선과 공간 구조로 표현한 구성은 관람객이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관련 사진



실물 오브제를 활용한 영상 투사

빔프로젝트 영상으로 채운 벽체 전시

## 14.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싱가포르관

□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6:20~17:00

□ 전시 개요

- Dream Sphere라는 명칭의 돔형 파빌리온은 ‘작은 나라의 큰 꿈’을 형상화한 것으로, 꿈을 현실화하는 여정을 체험 중심의 전시로 표현
- 지속가능성, 포용성, 창의성의 가치 아래 설계된 파빌리온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가 추구해온 녹화정책과 회복력의 서사를 전달
- 관람객이 직접 입력한 ‘나의 꿈’이 마지막 영상관에 투사되는 공간은 관람객의 체험과 몰입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제공

□ 시사점

- ‘작은 나라의 큰 꿈’이라는 내러티브는 국가의 물리적 규모와 상관없이 가치 중심의 전시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빙
- 관람객이 직접 입력한 메시지가 전시의 일부가 되는 체험은 정보 전달을 넘어 ‘기억에 남는 체험’을 만드는 참여형 설계로 향후 GKEDC의 콘텐츠에 접목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관련 사진



직접 입력 가능한 체험 인터페이스

메시지가 돔형 화면에 떠오르는 연출

## 15.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스페인관

일 시: 2025년 4월 22일(화), 17:00~18:00

전시 개요

- 스페인관은 쿠로시오(黒潮), 즉 일본과 스페인을 연결해온 해류를 주제로 해양, 태양, 문화, 교류, 지속가능성을 전시로 표현한 몰입형 전시관으로 조성

주제	주요 특징
어두운 해저 (공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두운 색채와 잔잔한 음향으로 해양 생태계의 신비로움과 쿠로시오의 깊이를 표현</li> <li>- 스페인과 일본 간 역사적 교류의 뿌리, 해상 루트를 통한 연결성을 소개</li> </ul>
햇갈 가득한 해안 (공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하고 밝은 색조, 역동적인 음악 전환을 통해 스페인의 해안 도시와 활력 있는 문화를 소개</li> <li>- 갈리시아에서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스페인의 해양 생물의 다양성, 블루 이코노미(해양산업), 기후 변화 대응 사례 등을 소개</li> </ul>

- 전시 디자인은 바다의 유기적인 흐름과 햇빛의 에너지를 모티프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페인의 자연 환경과 문화적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시사점

- 자연 흐름을 전시관 구조와 동선에 녹여낸 설계는 추상적인 개념(해류, 교류, 에너지)을 시각적·감각적으로 구현한 좋은 사례로, GKEDC 전시관의 동선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
- 시각과 청각의 강한 대비(해저 공간과 햇살 공간)는 전시 내내 집중도와 몰입감을 유지하게 하는 기획 전략으로, 긴 전시를 끊임없이 관람할 수 있는 효과를 유발
- 쿠로시오 해류를 매개로 일본·스페인 간 교류를 강조한 연출은 한국과 세계 경제의 연계와 교류를 표현하고자 하는 리노베이션의 연출 방식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관련 사진



## 16.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프랑스관

□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09: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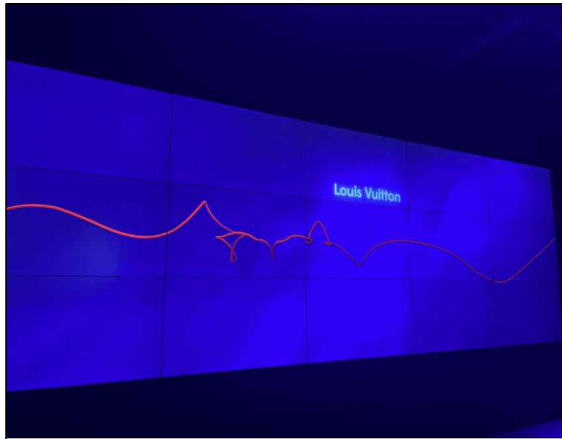
□ 전시 개요

- 프랑스관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중음악 중 하나인 ‘사랑의 찬가(Hymne à l’ amour)’ 를 매개체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인, 타인,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기획
- 일본의 ‘붉은 실’ 전설에서 모티프를 얻은 ‘보이지 않는 연결’ 을 전시 공간과 연출에 담아냄으로써 사람과 사람, 인간과 환경의 연결을 강조
- 사랑이라는 고전적 주제를 프랑스가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와 현대적 기술 및 예술로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 호기심을 자극

□ 시사점

- 문화와 산업, 예술과 기술이 통합된 전시 연출은 다양한 분야와 가치를 풍성하게 다루는 리노베이션이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유명하고 관람객에게 친숙한 매개체를 활용한 전시 연출 방식은 다소 딱딱하고 건조한 주제인 경제발전을 다루는 GKEDC의 전시가 어떻게 리노베이션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여러 톤 & 매너가 혼용된 전시 연출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보다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전시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으로 마무리하는 서사 구조는 GKEDC 전시관의 공간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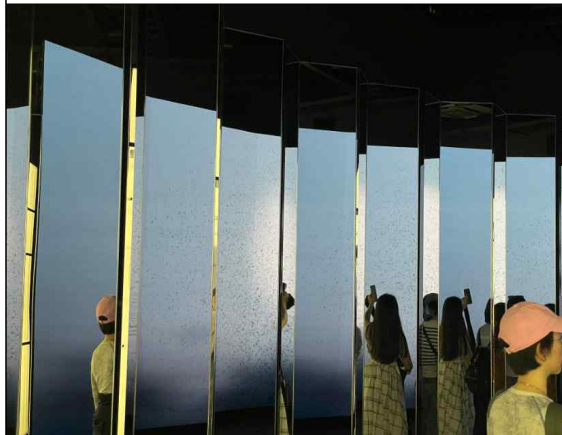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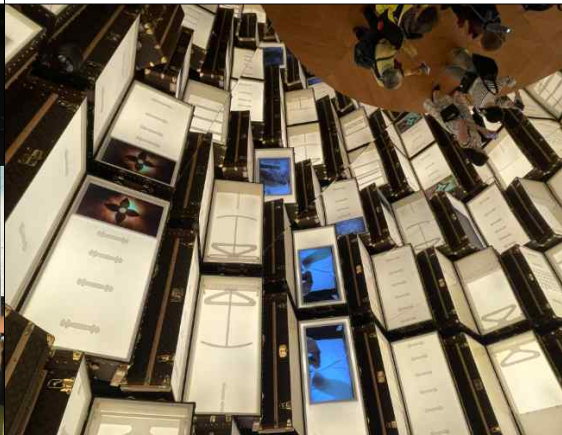
전시 주제인 '운명의 연결' 암시



집중도를 높이는 영상관 구조



거울을 활용한 몰입형 연출



천장 거울을 통한 공간 확장 연출



프랑스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전시 연출



프랑스 ·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 비교 전시

## 17.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영국관

□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0:00~11:00

□ 전시 개요

- 유아용 장난감에서 영감을 받은 블록을 활용한 건축 구조와 전시 연출은 영국의 혁신성과 포용성을 상징적으로 표현
- 영국관은 단순한 형태의 블록들이 모여 거대한 구조를 이루듯이 작은 아이디어들의 축적이 큰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시로 표현
- 영국의 다양한 도시, 역사, 미래 기술을 ‘아빠와 딸의 통화’라는 일상을 통해 따뜻한 감성으로 소개
- 마스코트 PIX는 픽셀에서 착안된 캐릭터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영국과 일본의 발명 스토리를 유쾌한 방식으로 소개
- 영국의 과거 산업(증기기관)부터 미래 기술(탄소중립 우주항)까지의 연대기를 전시 동선 속에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영국의 산업발전사를 소개

□ 시사점

- 단순히 기술을 나열하지 않고 가족 대화라는 서정적 서사를 통해 영국에 대한 정보와 발전의 역사를 전달하는 방식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발전사를 풀어가야 하는 GKEDC 리노베이션의 기획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
- 마스코트 PIX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친근하게 소개하는 방식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전시 설계로, 아동부터 외국인에 이르는 스펙트럼 넓은 관람층을 보유하고 있는 GKEDC의 전시가 어떻게 전시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기대
-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결과를 만드는 체험 전시는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스스로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유발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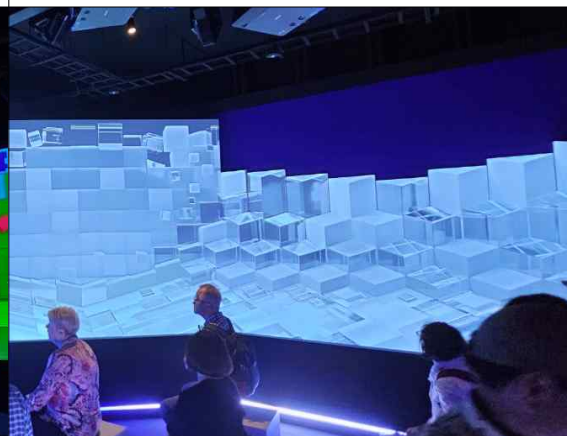
장난감 블록에서 착안한 전시 디자인



전시기획 의도를 느끼게 해주는 도입 영상



블록을 활용하여 입체감을 살린 영상



육면체 벽에 투사된 역동적인 영상 연출



육면체 영상 스크린과 관람객 체험 공간



바닥 스크린을 활용한 영상관

## 18. [사례조사] 2025 오사카 엑스포 - 전력관

□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1:00~12:00

□ 전시 개요

- 전력관은 2050년 카본 뉴트럴을 목표로 하는 미래사회를 다루는 파빌리온으로, 전력산업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에너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전시관
- 관람객은 입장 시 주어지는 타마고(Egg) 모양의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체험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해

주제	주요 특징
가능성 존	- 에너지 생성과정, 신재생에너지의 다양성, 변환 기술 등을 게임적 요소와 체험 콘텐츠로 경험
빛의 존	- 축적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빛과 소리를 생성하는 몰입감 높은 Light Show 형식의 관람 기회 제공

□ 시사점

- 관람의 전 과정에 ‘Egg’ 을 활용하여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전시 기획은 관람객들에게 단순 전시 관람이 아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이라는 전시 주제를 게임, 시뮬레이션, 반응형 조명 등으로 시각화하고, 관람자가 에너지를 ‘모으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기술적 주제를 감각적으로 전달
- 참여형 인터랙션으로 관람객의 주도성을 높이는 연출 방식은 교육형 전시나 청소년 대상 콘텐츠 설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가능성, 미래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게임을 통해 시각화한 시도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GKEDC 2층 전시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

□ 관련 사진



전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관람도구 'Egg'



다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서막 영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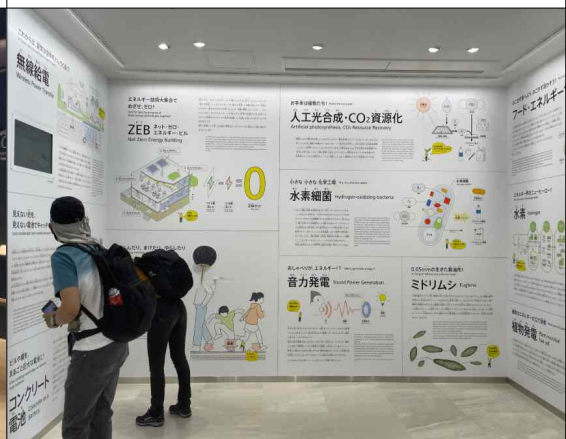
전시 전환부를 강조한 연출 공간



소규모 그룹 형태의 디바이스 체험공간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체험결과 확인 공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패널 전시

## 19. [사례조사] 오사카 기업가박물관

□ 일 시: 2025년 4월 23일(수), 15:00~18:00

□ 전시 개요

- 전시는 오사카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발굴한 오사카 관련 유명 기업인 약 100명의 일대기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소개하고, 그와 관련 기업의 성장과 소개를 함께 소개
- 전시 연출은 기업가의 창업스토리, 좌절과 재도약, 기업가정신과 사회공헌 등을 패널 형태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각 인물의 경영철학과 기업가정신을 전달하도록 구성
- 또한 회사 CI, 회계장부, 제품 모형 등 기업 활동 관련 유물을 배치함으로써 관람의 몰입감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출기법을 활용

□ 시사점

- 좌절과 재도약의 서사 구조는 감정적 공감대 형성뿐 아니라 교훈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노베이션의 전시 구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 인물과 일화 중심의 전시 구성은 경제발전사 전시에서 관람객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전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콘텐츠 구성 방식이라고 평가
- 전시 대상자의 생애를 타임라인으로 구성한 방식은 복잡한 역사의 흐름을 시각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며, 이는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경제발전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GKEDC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
- 유물을 적절히 활용한 전시 연출은 경제사 전시에서 정보의 신뢰를 높이고, 공감대와 몰입감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노베이션 전시 연출 시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
- 기업가별 전시 콘텐츠의 분량과 형식을 일률적으로 배분·적용한 점은 근현대 한국경제사를 다루는 GKEDC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연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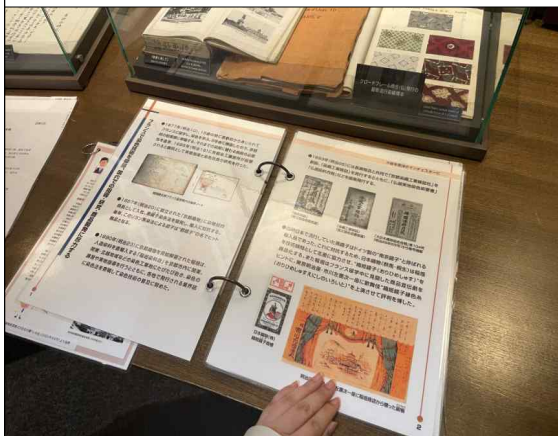
□ 관련 사진



균등·통일된 형식의 기업가별 전시 연출



기업 및 기업가 관련 유물 전시



추가 정보 및 외국인을 위한 전시 연출



최신 기술 소개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기둥을 활용한 Zone 구분 표기 사례



통일된 톤&매너 및 Zone별 전시 구성

## 20. [업무협약] 주오사카한국문화원

-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00~12:00
- 장 소: 일본 오사카 주오사카한국문화원
- 참석자
  - (내부) 강동수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
  - (외부) 노승현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실무관
- 주요 면담 내용
  -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간사이 지역 및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저변 확대와 한일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운영
  - 이번 방문은 문화원이 진행하는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GKEDC와 오사카한국문화원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추진
  - 문화원은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어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의 경우 별도의 전시 공간(120㎡)을 마련하고 한일 교류를 테마로 한 각종 전시회 및 외부 작가 초청전 형태의 전시를 개최
  - 현재 GKEDC는 국제협력 및 교육 사업의 추진을 위해 케이팝의 성장 과정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을 진행중으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기획전시 개최를 문화원과 협의
  - 케이팝 관련 콘텐츠는 문화원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현재 케이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케이팝 관련 전시 개최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
  - 면담 결과, 양 기관은 전시 개최 시기와 기간, 전시 예산, 전시 연출 콘셉트 및 콘텐츠 제작 방법 등을 향후 논의하여 기획전시 개최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협의

□ 관련 사진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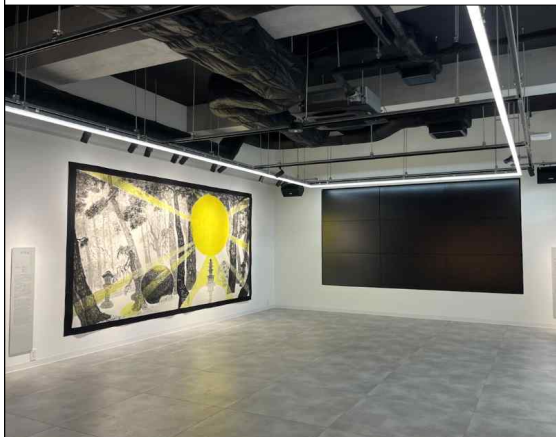
문화원 내 상설전시 공간



한국 공예품 관련 전시



전시 주제 소개 패널



외부 작가 초청 전시



한일 교류를 테마로 한 전시 연출

## 21. [사례조사] 파나소닉 뮤지엄 -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

□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00~12:00

□ 전시 개요

- 파나소닉 뮤지엄은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창업자의 생애를 조명한 역사관과 파나소닉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모노즈쿠리즘관으로 구성

주제	주요 특징
마쓰시타 고노스케 역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94년에 걸친 생애를 7개의 Zone으로 구성한 전시관</li> <li>- 창업 스토리, 직원 및 가족과의 협업, 사회적 도전과 극복 사례 등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철학과 인간적 면모를 소개</li> </ul>
모노즈쿠리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이후 100년간에 걸친 파나소닉의 대표 제품 약 550점 전시</li> <li>- '가사, 안심, 자유, 감동, 배려, 신기준'의 6개 분야로 파나소닉의 제품을 분류하고 관련 스토리를 전달</li> </ul>

- 전시는 창업자의 철학과 기업의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물 중심의 서사와 관련 유물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 지속가능성을 조망

□ 시사점

- 창업자의 생애와 철학을 타임라인에 기반하여 구성하고, 이를 길을 형성화한 디자인에 녹여 구성한 전시 연출은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전시에 몰입하고 전시 이해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평가
- 단순 연대기적 배열이 아닌 철학, 제품,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통합한 전시 연출 방식은 한국산업발전사를 다루는 데 있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적절한 위치에 가벽을 설치하고 중앙에 별도의 영상관람 Zone을 마련한 공간 구성은 GKEDC 전시관의 한계로 지적되는 다수의 기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으로 주는 것으로 평가

□ 관련 사진



파나소닉 뮤지엄 건물 외관



창업자 이름(松下)을 활용한 전시 연출



창업 당시를 설명한 디오라마 전시



전시관 중앙에 위치한 영상관람 Zone



물가를 활용한 데이터 전달 연출



바코드카드를 활용한 디지털 라이브러리